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올해 상반기 21개 자유무역시험구 외자 이용액 8.2% 증가

- 올해 1~6월 중국내 21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 이용액은 8.2% 증가한 1,297억 위안(한화 약 23조 원)으로 0.4%의 국토면적에서 18.4%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 따르면 2013~2023년 10년간 신규 등록된 기업은 8.4만 개사, 신규 외자 프로젝트는 1.4만 건, 외자 유치액은 586억 달러임
- 지역별 자유무역시험구는 시스템 통합 및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 바이오, AI, 민간항공 등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저장성 저우산(舟山)자유무역시험구는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국제 원자재 산업기지 구축 △장쑤성자유무역시험구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안전성 보장, 디지털기술 연구, 디지털 무역을 통해 탄소무역 장벽 해소에 주력할 계획을 밝힘

자료원 : 신화망

www.jjckb.cn/2023-09/19/c_1310741957.htm

2 中, 올해 RCEP 활용 수출 20% 증가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8월 31일까지 RCEP를 활용한 수입액은 1,213억 위안(한화 약 22조 원), 수혜 품목은 철강,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유기화학품, 기계 및 기계부품 등 이고 수출액은 4,195억 위안(약 76조 원), 수혜 품목은 의류 및 부자재,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피혁제품 등임
- 올해 RCEP를 활용한 수입,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3.6%, 20.2% 증가한 560억 위안(약 10조 원), 1,817억 위안(약 33조 원)으로 집계됨
- 아이리스(爱丽思)생활용품(텐진)유한회사 관계자는 RCEP 발효로 지난 1년간 일본과 한국으

로부터의 주문량이 증가세라고 밝힘. 당사는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원산지 누적 규정을 적용한 후 태국에서 에틸렌-프로필렌 혼합물 등 원료 수입시와 일본에 생산해낸 플라스틱막과 플라스틱 수납함 수출시 모두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함

- 원산지 누적기준은 RCEP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로 해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내 652개 기업이 원산지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1.5만 건의 화물에 대한 RCEP 원산지 증서를 신청했으며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9/18/content_26017521.htm

3 中, 신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량 200% 대폭 증가

- 중국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신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량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으며, 이 중 리튬이온 배터리 저장장치의 설치량이 전체의 97%를 차지함
- 1~6월 태양광 다결정 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전지, 모듈 생산량 모두 전년 대비 65% 증가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400GW/h를 기록함
-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자산업 발전 촉진방안’, ‘리튬이온 배터리산업 관리규정’ 등 정책에 힘입어 테슬라, CATL(宁德时代), 비야디(比亚迪) 등 기업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에너지 저장 분야의 투자를 추진 중임
-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향후 신형 에너지 저장산업 관련 정책을 지속 출범하고 신형 에너지 저장장치 제품 및 태양광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등 핵심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신형 에너지 저장산업은 신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전원 관리 칩, 전력 전자 모듈, 에너지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며, 친환경 저탄소 발전 추세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교통, 건설, 산업 등 분야에서 응용이 확대되고 있음
- 신형 에너지 기업인 산둥첸웨이(山东泉为)는 65억 위안(약 1조 원)을 투자하여 자오창시에 고효율 이형접합 배터리 및 모듈 자동화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간쑤성 우웨이(武威)시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네이멍구 바우터우시는 태양광 실리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신형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자료원 : 신화망

http://www.news.cn/2023-09/12/c_1129858534.htm

4 中 티몰국제, 해외 브랜드 유치 가속화

- 올해 상반기 2,000개 이상의 해외 브랜드가 티몰국제에 중국내 첫 점포를 오픈했고 점포수 기준 1~5위는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호주로 나타남
- 입점한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뷰티, 퍼스널케어 등 품목이 각각 32%, 20%, 10%를 차지했으며 노인용 건강식품, 클린뷰티, 남성용 스킨케어 등 품목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유니레버 산하 Nutrafol은 올해 5월 티몰국제에 입점한 후 3개월간 월별 거래액이 연속 100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을 돌파했고 유럽의 아이케어 브랜드 brieve는 티몰국제 입점 반년간 누적 거래액 3,000만 위안(약 55억 원)을 달성했음
- 현재 티몰국제에는 90개 이상 국가(지역)의 4만 6,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추후 16개 국가(지역)에서 56건의 입점 설명회를 개최하여 향후 1년간 1만 개의 브랜드를 유치할 계획으로 해외 브랜드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료원 : 인민망

<http://finance.people.com.cn/n1/2023/0912/c1004-40075422.html>

5 中, 세계 최대 자전거 생산·수출국으로 보유량 2억 대 돌파

- 중국자전거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자전거 생산 및 수출국으로 보유량이 2억 대 이상이며 베이징, 창사, 청두 등 8개 도시주민 조사에 따르면 100회 외출시 30회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이로써 전국적으로 일간 탄소배출량 1만 톤을 감축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자전거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량화, 스마트화의 전기자전거 생산량이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2년간 중국의 자전거 판매량 증가율은 20% 이상으로 스마트한 전기자전거가 젊은층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음
- 한편 자전거 산업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의 추진으로 생산과정의 용접로봇, 도색로봇, 원료 운반로봇 등의 응용이 광범해졌으며 20% 이상 기업들은 생산라인 자동화를 실현했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9/18/content_26017520.htm

6 中, 향수시장 빠른 성장세...올해 판매액 200억 위안 예상

- 컨설팅회사 유로모니터(欧睿咨询)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의 향수 판매액 증가율은 글로벌 평균 수준을 상회했으며, 2022년 글로벌 향수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세인 가운데 중국의 향수시장은 10.6%의 성장률을 보임
- 2022년 중국의 향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3.7% 증가한 174억 위안(약 3조 원)이며, 치엔잔(前瞻)산업연구원은 2023~2028년 연평균 20% 성장하여 2028년 539억 위안(약 9.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중국 향수산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향수 판매액은 200억 위안(약 3.6조 원)을 돌파할 전망. 로레알 중국 부총재는 향수는 로레알의 3대 보배 중 하나로 향후 3~5년간 향수시장이 비약 성장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글로벌 대기업들은 향수 시장을 주목한지 오래되었으며, 2014년부터 LVMH, 에스티로더, 로레알 등은 니치향수 브랜드를 인수하기 시작했고 에스티로더는 니치향수 브랜드 Le Labo와 Frederic Malle을 인수하고 Jo Malon를 중국시장에 진출시켰음

자료원 : 증권시보망

<http://www.stcn.com/article/detail/977919.html>

7 中, 올해 상반기 식기세척기 판매액 9% 성장

- 오늘날 세탁기, 바닥세척기, 식기세척기 등이 3대 청결가전으로 불리는데 중국내 식기세척기 보급률은 3%에 불과하며 ‘2023년 중국 식기세척기 포럼’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식기세척기 분야가 유망하고 2030년이 되면 보급률이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GfK 중이강(中怡康)의 데이터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국의 식기세척기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9% 증가한 61억 위안(약 1조 1,054억 원)이며, 이 중 온라인 판매액은 26억 위안(약 4,711억 원), 판매량은 60만 대, 오프라인 판매액은 35억 위안(약 6,343억 원), 판매량은 59만 대임
- 주방가전 브랜드 팡타이(方太) 식기세척기 부문 관계자는 최근 팡타이 식기세척기는 세척청결 기술 진보 외에 ‘건조, 저장, 소독’ 등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또 젊은층의 수요에 비추어 외관 디자인 등 면에서 변혁을 가져왔다고 전함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309/202309181338301088.html>

8 中,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적극 응할 것

-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착수 관련 중국 상무부는 9월 14일 이번 조사는 EU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망과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국과 EU간 경제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승용차연합회 비서장은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원정책은 2022년 말에 이미 전부 중단되었고 중앙 정부는 2018년 말부터 지방에서도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으며, 이번 조사에 적극 응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밝혔음
- 1~8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61.9% 증가한 294만 대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시장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8%로 상승했고 2025년에는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산 모델은 유럽산 대비 20%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함
- 유럽 자동차 산업 분석기관 자토 다이내믹스(Jato Dynamics)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중국산 전기차 원가는 3.2만 유로(약 원) 미만, 유럽산은 5.6만 유로임
- 2022년 비야디(比亞迪)는 판매량 181만 대로 승용차 기업 중 1위를 석권하면서 상하이폭스바겐, 이치폭스바겐 등 중외 합자회사가 40년간 1위를 기록하던 국면을 종결했고, 올해 상반기 이치폭스바겐의 판매량은 84만 대로 여전히 비야디의 115만 대에 못미쳤음. 한편 독일계, 일본계 등 브랜드의 시장점유율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유럽은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EU 자동차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사실상 폭스바겐은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허페이시(合肥)에 전기차 혁신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폭스바겐과 아우디(奧迪)는 각각 샤오펑(小鵬), 상치(上汽)와 협력한다고 발표함
- 한편 상치(上汽), 비야디(比亞迪), 창청(長城) 등 중국기업들은 유럽에서의 현지화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현지 제품을 출시할 예정임

자료원 : 중국신문주간

<https://baijiahao.baidu.com/s?id=1777190711469807411&wfr=spider&for=pc>